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	
		배포일자	2023년 4월 5일(수) 총 3매		
담당 부서	인천문화 예술회관	담 당 자	• 기획운영팀장 차영주 ☎420-2710 • 담 당 자 유은미 ☎420-2739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소극장에서 만나는 오페라의 열정!

- 4.14. ~ 16. 인천시, 인천 소극장 오페라 페스티벌 개최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020년부터 인천 예술인들이 우수한 공연 창작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기획과 홍보를 지원하는 ‘인천열전’이 올해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인천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페라단 세 단체의 소극장 오페라 작품을 묶어 ‘인천 소극장 오페라 페스티벌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오페라는 문학, 미술, 음악, 무용 등 문예부흥(르네상스)의 결과로 꽃피워 온 공연예술의 정수라 할 수 있다. 대형 무대를 배경으로 대규모 출연진이 등장하는 공연으로 인식돼 있지만 소극장에서 만나는 오페라는 훨씬 더 친근하고 밀도 있는 오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.

구미 예술의 관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음악 대학 하나 없는 열악한 도시 환경에서도 인천은 많은 지역 출신 성악가들을 배출하며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.

인천시는 공연예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소극장을 마중물 삼아 시민 관객을 위한 친근한 오페라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.

4월 14일 첫 무대로 집주인과 가정부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린 노이노이의 <마님이 된 하녀>, 15일에는 판소리 춘향가를 모티브로 만든 아트아우룸의 <봄 춘향>, 16일에는 파리 뒷골목의 가난한 삶 속에서도 예술과 사랑을 노래하는 젊은이의 성장을 다룬 오페라움의 <라 보엠> 등 작지만 큰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다.

<인천 소극장 오페라 페스티벌> 공연의 티켓 가격은 전석 2만 원이며, 인천문화예술회관, 엔티켓 및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약가능하다.

8세 이상 관람가. 예매 문의) 인천문화예술회관 1588-2341

2023 인천열전 <인천 소극장 오페라 페스티벌>

□ 일 시 : 2023년 4월 14일(금) ~ 16(일)

 금요일 오후 7시30분, 토·일요일 오후 5시

□ 장 소 :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

□ 관 랑 료 : 전석 2만원

□ 관람연령 : 8세 이상

□ 공연문의 : 인천문화예술회관 1588-2341

□ 주최/주관 : 인천문화예술회관

〈불임〉 관련 사진



포스터



공연사진 〈마님이 된 하녀〉



공연사진 〈봄 춘향〉



공연사진 〈라 보엠〉